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보험사 스트레스·시나리오 테스팅 실시

□ 영국의 금융감독청(FSA)은 금년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시나리오 테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, 변수들을 달리하여 동일 테스팅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.

- o FSA는 2008년 말 영국의 보험사, 은행,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, 올 초에 대형생보사 위주의 정형화된 스트레스 테스팅을 실시하였고, 3월초에는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팅을 실시하였다고 밝힘.
- o 동 테스팅의 목적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FSA는 자본적정성의 평가 항목에 각 보험사가 취할 대응 조치와 사용 가능한 잉여자본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힘.
- o 테스팅의 결과는 회사별로 공표되지 않지만, 결과에 따라서는 자본확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임.

□ FSA의 보험사 시나리오 테스팅은 3월 초까지의 경제 여건을 반영함에 따라 2008년 말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은행권보다는 완화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- o 영국의 FTSE100 주가지수는 연초부터 3월 초까지 23% 하락하였는데, FSA는 2009년 말까지 금융시장이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고 주식가치는 20% 하락, 자산가치는 15% 하락, 신용스프레드는 50bp 확대, 회사채수익률은 50bp 상승을 가정하여 테스팅에 적용함.
- o 보험사의 스트레스·시나리오 테스팅 기간은 금년 초부터 연말까지이며, 1980년대 영국의 V字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원용하여 금융시장의 극심한 침체 후 상당히 빠른 회복을 가정한다고 밝힘.
- o 결국 은행권의 테스팅이 2차 대전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데 반해 보험권의 테스팅은 다소 완화된 가정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반면, 전문가들은 영국의 주식시장이 3월을 저점으로 현재에는 많이 호전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산가치 하락과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대비한 테스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.

(FSA Statement, 7/21; Financial Times, 7/21)